

이슈 브리핑

🔴 이슈 요약

- ◆ 중국 정부, '26년부터 PHEV 차량의 경우 EV모드 주행 가능거리 100km 이상만 취득세 감면 인정
- ◆ 중국 내에서 자국 브랜드 신차 점유율이 높아진 가운데 '25.9월 승용차 소매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 기록
- ◆ 중국 선전시 교통국, 완전 무인 주행시험 지침 개정으로 기업 규제·비용 부담 완화 및 관련 기술개발 가속화 추진
- ◆ 글로벌 주요 OEM이 잇달아 전기차 가격을 인하함에 따라 전기차 시장 내 가격 경쟁 본격화 조짐
- ◆ '25.9월 미국 신차 평균 가격이 고가 모델 및 전기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초로 5만 달러 돌파
- ◆ EV 위탁 생산을 노리는 Foxconn, Nissan의 옷파마 공장 매각이 이견으로 인해 일본 내 생산거점 확보 계획 무산

◆ 중국 정부, PHEV 취득세 감면에 관한 기술적 요건 강화

- 중국 공업정보화부(MIIT)는 '26년부터 신에너지차(NEV) 취득세 감면* 대상을 PHEV·BEV로 하되, 감면 요건을 강화한다고 발표

* 대당 '25년 최대 3만 위안(약 600만원) → '26년 최대 1.5만 위안 감면

- 특히 PHEV의 취득세 감면 요건에 있어서 순수 전기 주행(EV모드) 거리가 현재의 43km에서 100km 이상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
- BYD, SAIC 등 일부 PHEV 모델의 EV 모드 주행거리가 100km를 상회하나, 전체적으로는 PHEV의 40%만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중국 내 인기 PHEV의 사양 변화 및 구형 모델 단종이 예상됨

Nikkei('25.10.10.) <https://s.nikkei.com/42Di8Gf> YiCai('25.10.10.) <https://bit.ly/3WYEdCe>

◆ 중국, '25.9월 승용차 소매 판매 역대 최고치 기록

- 중국승용차협회(CPCA)에 따르면 '25.9월 중국 승용차 소매 판매량은 224.1만 대(전년 동기比 +6.3%, 전월比 +11%)로 역대 최고치 경신

* NEV 차량에 대한 점진적 구매세 감면, 9월 말 지방 보조금 축소 등 예고된 인센티브 축소를 앞두고 신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등하였다는 분석도 존재

- 한편 중국 자국 브랜드의 판매는 전년 동기 比 13% 증가한 150만 대로 점유율이 66.9%까지 증가한 반면, 외국 합작 브랜드의 판매는 6% 감소한 49만 대에 그쳤으며 독일, 일본, 한국 브랜드의 점유율도 하락

Gasgoo('25.10.13.) <https://bit.ly/3WzEVz5> CPCA wechat('25.10.13) <https://bit.ly/4n6desC>

◆ 중국 선전시, 완전 무인주행 시험 지원을 위한 지침 개정안 공개

- 선전시 교통국은 '25.10월 「지능형 커넥티드 차량의 도로 테스트·시범 적용 시행 지침」 개정 초안을 공개하며 완전 무인주행 시험 지원 계획을 명시
- 해당 초안은 완전 무인 주행과 관련된 신청·심사 절차 등을 정비하여 기업의 규제·비용 부담을 낮추고, 보다 개선된 자율주행 기술 검증 환경을 제공하여 고도화된 자율주행차 출시를 촉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음

Gasgoo('25.10.13.) <https://bit.ly/4omcHE2> 深圳市 交通运输局('25.9.15.) <https://bit.ly/43kVoej>

◆ 글로벌 주요 완성차 기업,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 본격화

- Tesla, 현대차, BYD 등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주요국 시장에서 전기차 가격을 대폭 인하함에 따라 가격 인하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
- 가격 인하의 배경에는 중국 전기차 업계의 과잉 생산 및 수출 확대 등 공급 측면의 경쟁 심화, 미국·유럽의 전기차 세액공제 축소 및 보조금 지원 종료 등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가 자리잡고 있음
- 주요 레거시 기업이 전기차 사업 손실을 겪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, 기업 간 원가 경쟁력 격차에 따른 경쟁 구도 변화 가능성도 제기됨

Nikkei Asia('25.10.9.) <https://bit.ly/4mUKT8p> Business Standard('25.10.9.) <https://bit.ly/4o0c4zV>

◆ 미국, 자동차 신차 가격 사상 최초로 5만 달러 돌파

- '25.9월 미국 신차 평균 가격이 사상 최초로 5만 달러를 돌파했는데, 이는 럭셔리 모델 및 전기차 판매 호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
- 특히 전기차는 9월 신차 판매의 약 11.6%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, 연방 정부 세액공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해석됨
- 한편 자동차 대출 연체율 상승 등 소비자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소비자는 중고차로 눈을 돌리는 등 시장 양극화 조짐도 나타나는 중

electrek('25.10.13.) <https://bit.ly/3J1nODi> CNBC('25.10.13.) <https://bit.ly/4oH5EGf>

◆ Foxconn, 일본 내 Nissan 공장 인수 협상 결렬

- 전기차 위탁생산을 추구하는 Foxconn은 생산 거점 확보 차원에서 '25.5월 일본 가나가와 현 소재 Nissan 옷파마(追浜) 공장 인수를 추진
- Foxconn은 공장 부지, 생산 설비, 건물 및 인력 등 포함한 인수안을 Nissan에 제시했으나, 협상 지연에 따라 인수 의향을 최종 철회
- 일각에서는 Nissan이 매각가 1,000억 엔 이상을 고수한 것을 결렬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으며, Nissan은 '28년 초 옷파마 공장 가동 중단 후 부지 매각, 산업 전환 등을 검토하는 있다는 전언

Digitimes Asia('25.10.9.) <https://bit.ly/48WjXSs> mashdigi('25.10.9.) <https://bit.ly/43ILmtg>